

# 철강신화 이끈 '뚝심맨'…순탄치 않은 정치 역정

'철의 사나이' 박태준이 걸어온 발자취

## 국회의원 4선·국무총리·‘DJ대통령 만들기’ 합류

13일 타계한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은 군인 이자 정치인이기도 했지만 ‘포철신화’를 통해 철강산업을 일으킨 ‘철의 사나이’로 더 많이 알려져 있다.

정계에서도 4선 의원에 총리까지 화려한 경력을 쌓았지만 경제인으로서 남긴 발자취가 더 뚜렷하기 때문이다.

1927년 9월 29일 경남 동래군 장안면에서 태어난 고인은 일본에서 성장해 1945년 왜세다 대학 기계공학과에 입학했으나, 해방으로 학업을 중단한 후 귀국해 1948년 육군사관학교를 6기로 졸업했다. 박정희 대통령을 처음 만나 인연을 쌓은 것도 이때였다.

1961년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회고회의 의장 비서실장에 발탁되면서 정계에 잠시 발을 들어놓았던 고인은 1963년 육군소장으로 예편한 후 이듬해 텁스턴 수출업체인 대한증식 사장으로 임명되면서 경제인으로 변신했다.

고인이 만성 적자기업이었던 대한증석을 1년 만에 혼자기업으로 바꾸었고, 1968년 탁월한 경영능력을 높여 평가한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부터 종합체질소 건설의 임무를 부여받게 된다.

하지만 자본은 물론 경험이나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제철소 건설작업이 순탄치는 않았다.

당시 일관제철소 건설 지원을 위해 조직된

국제차관단이 차관 공여를 철회하면서 건설 계획이 무산 위기에 놓이기도 했지만, 고인은 대일청구권 자금을 제철소 건설자금으로 전용하자는 발상을 내고 이를 성사시켜 1970년 착공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 때문에 고인은 “이 제철소는 식민지배에 대한 보상금으로 받은 조상의 험세로 짓는 것이다. 만일 실패하면 바로 우향우에서 영일만 바다에 빠져 죽어야 한다는 각오로 일해야 한다”고 말하며 ‘제철보국(製鐵報國)’의 정신을 강조했다.

조업개시 6개월 만에 흑자를 달성한 고인은 1기의 성공을 바탕으로 광양에 제2제철소를 건설하고 1992년 2천100만t 생산체제를 구축, 세계 철강업계로부터 신화창조자(Miracle-Maker)라는 칭송을 받았다.

포스코 역사 40년 중 26년을 최고경영자로 재직했던 고인은 1987년 현역 철강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철강의 노벨상인 베슬메 금상을, 1992년에는 세계적 철강상인 월리코프상을 수상했다.

고인이 정계에 본격적으로 입문한 계기는 1980년 신군부가 주도한 국보위 입법회의에 경제분과위원장으로 참여하면서부터다.

그 뒤 포항제철 회장을 겸임하면서 11, 13, 14대 등 3선 경력을 쌓았고 1990년 1월 노태우



13일 별세한 고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이 포항제철 초기사장 재직시절 제철소 공사현장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전 대통령에 의해 민정당 대표로 박탈되면서 정치의 전면에 서게 됐다.

그러나 민정당 대표 취임 후 ‘3당 합당’이 이뤄지고 김영삼 전 대통령과의 악연이 시작되면서 정치인 박태준은 곧 시련을 맞게 된다.

1992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김영삼 씨와 맞서다 좌절한 고인은 1993년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그해 3월 포철의 명예회장직을 탄핵당한 것은 물론 수뢰 및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일본으로 건너가 1997년 포항 보선 출마를 위해 귀국할 때까지 4년여의 ‘망명생활’을 해야 했다.

포항북구 보선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정계에 복귀한 고인은 그해 9월 김대중 당시 국민회의 총재와의 ‘노쿄(東京)회동’을 계기로 이른바 ‘DJP연합’에 합류한 뒤 야당후보 단일화 협상이 타결되자 같은 해 11월 21일 자민련 총재직에 취임했다.

이런 영욕을 거듭한 끝에 2000년에는 총리직을 맡았지만, 그해 5월 부동산부기 및 명의신탁 문제로 불거지면서 4개월의 단명 총리로 불명예 퇴진했다. 2001년에는 뉴욕 코넬대학병원에서 폐 밀물증 제거수술을 받았고 포철 명예회장으로 다시 위촉됐다.

/연합뉴스

## 권용일 민주평통자문위원 대통령 표창



## 재광 목포중·고 동창회장에 정윤남씨



정윤남 (유)거간에스엔씨 대표가 목포중·고등학교 재광 동창회 제 27대 회장에 선출돼 16일 저녁 6시 30분 광주 메리어트 웨딩 컨벤션홀에서 취임식을 갖는다.

## 이문영씨 여수경도개발 사장 임명



## 최재영 진흥고 감독 광주야구협 감사패



최재영 진혁고 야구부 감독이 광주야구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최재영은 13일 동구 수기동 그린호텔에서 열린 광주야구협회 송년회 행사에서 선행에 앞장선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최 감독은 할머니와 동생을 부양하고 있는 광주야구협회 여직원이 백혈병을 앓고 있는 동생의 수술을 위해 현혈증을 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 10월 선수단·학부모와 함께 현혈증 125장을 모아 기증했다.

/김여울기자 wool@

## 광주 지적장애인복지협회 위크숍

### ‘성년후견인제도’ 도입 보완책 논의

광주 지적장애인복지협회(회장 대행 유갑천)는 지난 12일 광주 서구 능성동 꿈의 궁전 웨딩홀에서 ‘2011년 서포터즈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지적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 힘쓴 후원자, 활동 보조인, 자원봉사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워크숍에서는 성년후견인제도 도입에 따른 홍보와 보완책이 논의됐다.

성년후견인제도란 지적장애인을 둔 부모가 사망한 후 지적장애인 또는 지자체나 검찰의 요청으로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로 지적장애인들의 자활과 안정적인 생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2013년부터 시행된다.

이날 주제 발표를 한 김정열 장애우 권리문제 연구소 정책위원장은 “성년 후견인제도의 시행이 그동안 구민법에서 보장하지 못했던 지적장애인들의 자기 결정권을 보완해줄 것”이라고 밝히고 “광주지역 지적장애인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수렴, 시행령등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일환기자 kih8@kwangju.co.kr



토론자로 나선 노미향 광주 지적장애인복지 협회 사무국장은 “실현성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 가족들의 이해와 협조가 최우선”이라며 “지적장애인들이 처해있는 부조리하고 절박한 현실 상황이 제도 시행에 앞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을 끝난 후에는 광주지역장애인복지협회 주관으로, 올 한해 지적장애인들의 복지향상에 힘쓴 공로자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김일환기자 kih8@kwangju.co.kr

## 순경에서 출발 32년 만에 여성 총경



### 광주경찰청 박영덕 보안1계장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특히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금의 제가 있기 까지 묵묵히 따라줬던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어요.”

광주지방경찰청 박영덕(여·54) 보안1계장이 경찰 입문 32년 만에 ‘경찰의 꽃’ 총경으로 승진했다. 지난 치안감 인사에서 첫 여성 치안감을 낸 광주경찰청은 박 계장의 승진으로 5년 만에 여성 총경을 배출하게 됐다.

박 계장은 경찰 승진 이후 나주경찰서 및 광산경찰서 생활안전과장과 광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계장 등 주로 여성청소년 분야에서 탁월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왔다. 지난해 광주경찰청 보안1계장을 맡으면서부터는 다문화기장과 북한 이탈주민 조기 접착을 위해 보안경찰과의 자매결연,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힘썼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탈북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했다.

박 계장은 “순경에서 출발해 총경까지 승진한 것은 모두 선후배 동료 직원들의 도움이 있어 가능했다”며 “앞으로는 사회 전반에 걸쳐 관심을 갖고 여성 총경의 강점인 섬세한 치안 서비스로 국민께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1979년 공제 52기로 입문한 박 총경은 1980년부터 31년째 광주에서 근속했으며, 아동 성폭력 방지, 실종아동 예방, 성폭력 피해자 지원 등에 뛰어난 성과를 남겼다.

“원스톱지원센터 같은 경우 선진국인 일본에서도 부러워하던 시책이었습니다. 지금의 이금형 청장과 호흡을 맞추면서 많은 것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미훈인 박 계장은 전남 목포여고와 광주대 법학과, 전남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김희진 북구 자치행정국장 장학금 기부



광주시 북구 김희진 (57·사진 오른쪽) 자치행정국장이 13일 300만 원을 (재)광주북구장학회에 기부했다.

광주북구장학회는 최근 자녀 결혼식을 가진 김 국장이 결혼 축의금 중 일부를 지역의 우수한 인재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써달라며 장학회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평소에 생각한 작은 뜻을 보인 것”이라며 “작은 정성이라도 모아 장학금을 기탁하고, 어려운 이웃을 돋는데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7년 설립된 광주북구장학회는 독지가와 기업체의 기탁금, 주민들의 소액 기탁 등으로 38억원의 장학금을 조성해 장학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8 FAX. 062-222-4938, 222-4918

## 화족

### 동창·동문회

▲오재훈씨 차남 원택군 신연호 (여수 소아어린이집 원장)씨 장녀 하나양=17일(토) 오전 11시 여수 시 봉계동 피오레웨딩컨벤션 1층 아트홀.

▲최운창(화순초교 교장)·윤행자 씨 장남 현석군 강순구(충장중 교장)·김형순씨 장녀 민서양=17일(토) 오후 1시 S타워 컨벤션(치평동).

▲정대성·최효심씨 차녀 허림군 최재희(광주 시청)·나수자씨 장녀 인선양=17일(토) 오후 2시 10분 웨딩의 전당 금호 30층 아도니스홀.

▲이희영(충장로상인회 회장)·정영심씨 장남 동우군 이병엽·최재현씨 장녀 유경양=18일(일) 낮 12시 S타워컨벤션(치평동) 3층 메리골드피아.

### 7080콘서트.

▲학교법인 유은학원(광주상고·광주여상고·동성고·동성중·동성여중) 광주 서구 동문회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겸 송년의 밤=19일(월) 오후 7시 한국농어촌공사 빌딩 3층 웨딩홀.

▲조대부고 16회 송년회=16일(금) 오후 6시 삼무지구 라마다호텔 4층 연회장.

▲광주상고 30회·광주여상 18회 송년회=16일(금) 오후 7시 용산동 이화여대당회.

▲광주상고 33회·광주여상 21회 송년회=16일(금) 오후 7시 하남무역회관 웨딩홀.

▲광주상고 35회·광주여상 23회 송년회=16일(금) 오후 7시 광주 라마다 호텔 5층 062-228-0197~8.

### 향우회

▲광주상고 26회·광주여상 14회 송년회=17일(토) 오후 5시 30분 광주회관 3층 011-605-6617.

▲광주상고 19회 송년회 모임(회장 기동도)=19일(월) 오후 7시 상무회관(상무지구 롯데마트 뒷문) 062-382-6100.

▲조선대 총동창회 ‘2011년도 정기총회 및 조대인의 밤’ 송년 한마당=21일(수) 오후 6시 광주 라마다 호텔 5층 062-228-0197~8.

▲광주상고 35회·광주여상 23회 송년회=16일(금) 오후 7시 광주 라마다 호텔 5층 062-228-0197~8.

▲광주상고 26회·광주여상 14회 송년회=17일(토) 오후 5시 30분 광주회관 3층 011-605-6617.

▲광주상고 19회 송년회 모임(회장 기동도)=19일(월) 오후 7시 상무회관(상무지구 롯데마트 뒷문) 062-382-6100.

▲조선대 총동창회 ‘2011년도 정기총회 및 조대인의 밤’ 송년 한마당=21일(수) 오후 6시 광주 라마다 호텔 5층 062-228-0197~8.

▲광주상고 35회·광주여상 23회 송년회=16일(금) 오후 7시 광주 라마다 호텔 5층 062-228-0197~8.

▲광주상고 26회·광주여상 14회 송년회=17일(토) 오후 5시 30분 광주회관 3층 011-605-6617.

▲광주상고